3. 그레이브스병의 치료약제에 따른 형태학적 소견에 관한 고찰

서울醫大 병리과
朴 聖 會·金 勇 一

서울醫大 내과
金三溶·金柄國·高昌舜·李文鎬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에 이용되는 약제들이 증식성갑상선실질에 형태학적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투여된 각각의 약제에 의한 병리학적 변화에 대한 고찰은 활발하지 못하다.

방사성옥소를 쓴 경우에는 그 치료후의 경과에 따른 세포조직학적 변화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항갑상선제를 쓴 경우에는 기능항진증의 관해여부와 관련하여 갑상선자체의 조직학적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저자등은 1976년부터 1980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시행된 810례의 진단적 갑상선침생검 중, 그레이브스병을 가진 80례의 병리조직학적 특성과 임상상을 연관 고찰하였다.

투여된 약제들은 1) I^{131}, 2) Methimazole의 2종에 대하여 병리학적 변화를 고찰하였던바

^{131}I을 투여한 群에서 가장 현격한 변화를 보였다.

核의 異形化, 濾胞細胞의 파괴 및 細胞間纖維化의 증가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치료한 후부터 침생검시기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두드러진 변화를 나타내었다.

항갑상선제를 투여한 群에서는 여포의 假性乳頭化 및 邊緣空胞化의 감소 및 여포세포의 위축을 보였다.

방사성옥소요법에 의하여 갑상선의 암종의 가능성이나 백혈병이 초래된다는 수례의 증례가 보고되었으나, 그 발생빈도는 정상대조군의 발생빈도에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암종의 출현은아니나 상당한 세포학적 변화가 초래됨을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변화의 임상적인 의의는 계속 추구해 보아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4. 甲狀腺기능항진증에서의 抗甲狀腺抗體의 발현빈도 및 趨移

서울醫大 내과
鄭淳逸·孫 仁·金三溶
金柄國·李正相·李文鎬

갑상선기능항진증환자에서 항갑상선항체의 발현빈도 및 이 질병의 경과에 따른 추이를 관찰하고자 연자등은 1978년 4월부터 1979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침생검으로 확인된 70례의 환자에 대하여 탄닌酸處理한 感作血球凝集反應(Tanned Red Cell Agglutination Test)으로 抗 thyroglobulin항체 및 抗 microsome抗體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보고하는 바이다.

1) 대상 70예중 25예(35.6%)가 抗 thyroglobulin 抗體陽性이었으며 50예(71.3%)에서 抗 microsome 抗體가 陽性이었고 두가지 抗體중 하나以上 陽性인 경우는 55예(78.5%)였다.

2) 갑상선중독증의 증상이 발현한지 3개월 以內에 본 병원을 처음으로 방문한 32예중에는 두 항체중 하나이상 陽性인 경우가 29예(91.8%)였고 3개월 이상의 병력을 가지면서 타병원 측원 본 병원에서 가료중인 환자 38례중에서는 26예(68.5%)가 陽性을 나타내었다.

3) 3개월以上의 치료관찰후 증상의 호전을 보였던 24례중 18례(66.7%)가 陽性을 보였으며 증상의 완화가 없거나 재발하였던 14예중 12예(85.7%)가 양성을 보였다.

4) in vitro 갑상선기능검사 수치상 기능항진의 소견을 보인 19예중 17예(84.2%)가 陽性이였으며 치료경과중 정상기능상태의 수치를 보인 10예중에는 5예만이 陽性이었다.

5) 8례의 환자에서 2개월 간격으로 4개월 이상 추적검사한 결과에서 5례에서 임상적경과의 호전과 함께 抗體力價의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2례는 力價의 변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임상적 경과에 있어 그중 1례는 4개월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 1례에서는 증상의 호전을 보였으나 抗體力價는 上昇하였다.

6) 以上의 결과로서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의 78.5%에서 抗甲狀腺抗體가 양성이었으며 그 發顯빈도 및 力價는 持病期間 및 임상증상과 有關한듯한 경향을 보였다.

5. 하시모도甲狀腺炎에서의 抗甲狀腺排體의 발현빈도 및 趨移

서울醫大 내과
鄭淳逸·孫 仁·金承澤
趙普衍·李正相·李文鎬

하시모도甲狀腺炎은 典型的인 自家免疫疾患으로 Roitt等(1956)이 抗 thyroglobulin抗體를 證明한 以來